

SALESIO 가작

2015 / 3 131호



Cover Story

농구는 우리의 만남 나눔:
돈보스코농구대회

연중기획

돈 보스코의 성지 Ⅲ



Salesian Bulletin of Korea
www.ibosco.net



살레시안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인 가난한 청소년

살레시안 여러분, 세상의 끝, 가장 변두리로 가십시오.
거기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난한 청소년을 만나십시오.

양승국 신부 살레시오회 관구장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 살레시오회에서는 사제·부제 서품식과 종신서원식이 있었습니다. 매년 후배 형제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니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대성전들이 즐비해도 그곳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없다면 그 대성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청소년들을 위해 사목할 공동체 수가 많아진다 해도 현신할 살레시안들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새 사제들, 신학생들, 봉헌생활을 꿈꾸는 성소자들은 우리 교회와 수도회의 보물이며 미래입니다.

매우 좋은 것들이 많이 널려있는 세상입니다. 눈과 귀를 솔깃하게 하는 유혹 거리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세찬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후배들,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하려는 우리 후배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을 떨치고, 인연을 떨치고, 곳곳이 봉헌생활의 길을 걷어가는 우리 후배들을 위한 보다 큰 관심과 기도, 배려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첫 미사 중에 한 형제가 감사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똑소리'가 나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저희 살레시오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

다면 저희 역시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저희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를 있게 한 장본인인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총장 신부님께서서는 살레시오 가족들이 한 해 동안 염두에 두고 살아갈 생활지표를 새해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 두 달 정도 앙헬 페르난데스 총장 신부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자주 애용하시는 표현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장 가난한 청소년', '변두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5년 생활지표에서도 이 표현들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장님의 생활지표를 제 나름대로 간단히 축약해봤습니다.

"살레시안 여러분, 세상의 끝, 가장 변두리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난한 청소년을 만나십시오. 그 청소년들은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세상의 중심과 단절되



“

가난한 청소년들은 어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살레시안들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살레시안들이 이 값진 보물인
청소년들 사이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입니다.

”



어 있고, 다른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기회나 가능성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청소년들은 어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살레시안들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살레시안들이 이 값진 보물인 청소년들 사이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입니다.”

총장 신부님께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변두리는 우리 살레시안 DNA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특히 가장 가난한 청소년들과 함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관구를 바라봤습니다. 살레시안들이 현존하고 있는 전 세계 132개국, 86개 관구 가운데 그 어떤 관구보다도 더 열심히 변두리와 가난한 청소년들을 찾고 있는 관구였습니다. 신입관구장 교육 중에 알게 된 것 한 가지는 총장 신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셨고 한국 살레시안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하나, 각 단위 사업체 하나하나를 살펴보니 대부분 장소에서 우리 살레시안들이 부단히 변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이 시대 가장 가난한 청소년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보스코 학교, 나눔의 집, 직업학교, 자립생활관, 드림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교정사목, 이주민

노동사목, 새터민 사목, 상담지원센터….

작년 광주 돈보스코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형제들과 선생님들이 출근길에 승합차를 몰고 아이들 집까지 찾아가서 일일이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고, 겨우겨우 달래가면서 등교 지도를 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청소년들은 정말이지 우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가장 변두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 날개가 한풀 꺾인 아이들을 따뜻이 어루만지는 선생님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총장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집을 개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살레시오 집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살레시안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능성과 에너지가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목터들이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 더욱 개방되고, 그래서 가난한 청소년들이 기쁜 얼굴로 찾아오는 오라토리오가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살레시안들이 환한 얼굴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세파에 지친 아이들, 상처 입은 아이들을 따뜻이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농구는 우리의 만남 나눔

: 돈보스코농구대회



1985년에 시작된
돈보스코농구대회.
50회 동안 12,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만남과 나눔을 이뤘다.

Contents

2015년 3월 통권 131호

- 02 **여는 글**
살레시안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인
가난한 청소년 양승국 신부
- 04 **Cover Story**
농구는 우리의 만남 나눔:
돈보스코농구대회 편집부
- 08 **살레시안 뉴스**
살레시오 가족 소식 편집자문위원
- 10 **연중 기획 · 돈 보스코 성지 ③**
키에리: 청소년, 도시, 성소 편집부
- 16 **정직한 시민 좋은 신자**
돈 보스코를 시수로 모신 기술자:
문석원 동문 편집부
- 19 **살레시오 성인**
하느님의 종 안드레스 마센 신부 편집부
- 22 **부모세대 VS 자녀세대**
엄마와 말하기 싫어요 편집부
- 24 **생명을 주는 가족 37**
청소년이 행복해지려면 박은미
- 26 **독자편지**
독자들의 독후감 전민경 외
- 27 **퀴즈**
독자 퀴즈 및 후원자 명단 편집부
- 28 **돈 보스코의 마음으로 교육합시다**
사랑으로 신뢰를 인양하자! 편집부
- 32 **살레시오 선교**
몽골 선교지 이야기 박혜자 수녀
- 35 **닫는 글**
돈 보스코 대회년에 임경숙 수녀

“우리 오라토리오에 오는 아이들을 모아 농구대회를 한번 해 보면 좋겠죠!” 정해진 1년의 수련을 거의 마치고 서원을 불과 몇 주 앞둔 ‘짬밥’의 수련자들이라면 수련장의 “좋겠죠”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뜻의 다른 표현임을 당연히 알아들어야 한다. 30년 전인 1985년 1월 중순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나는 이야기다. 그렇게 여섯 개 팀이 모여 흠먼저 바닥을 마다치 않고 이틀 동안 우정과 젊음을 나눈 것이 효시가 됐다. 조출하게 시작되었으나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해마다 한두 차례씩 개최되며 발전한 것이 벌써 50회에 이른다.





청소년과 함께 젊음을 즐기는 공간

지난 1월 11일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축일에 일곡동 살레시오중고등학교 체육관에는 500여 명의 아이와 봉사자로 가득했다. 제50회 돈보스코농구대회 8일간의 열전이 개막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대회를 통해 젊음을 즐기고 꿈을 키우기를 희망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이며 또한 패배의 의미도 소중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승국 관구장 신부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농구대회를 준비하고 돕는 많은 사람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참가 학생들이 살레시오회가 마련한 축제의 마당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가운데 우정을 쌓고, 승리만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배우고 건설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전체 81개 팀 600여 명이 신청한 제50회 대회도 이전의 대회처럼 사비오(중 1-2), 루아(중 3-고 1), 보스코(고 2-3) 등 세 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되었다. “저희는 인터넷을 보고 신청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동네 친구들이 평소에도 자주 모여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대회에 참가해서 다른 아이들과 겨뤄 볼 기회가 있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고 3 졸업생이라 이제 또 참가할 기회가 없어 아쉽지만, 동네 후배들에게 대회를 알리고 참가하도록 권할 것입니다.” 첫 경기를 흥가분하게 승리로 마감하고 땀에 흠뻑 젖은 얼굴을 닦는 오창근 군(여천고등학교 3학년),

이틀 후에 있을 다음 경기에서도 꼭 승리할 것이라 장담하며 자신들이 사는 여수로 돌아가야 한다고 길을 서두르는 그 팀(샤프)원들의 건강한 미소가 정말 멋져 보인다.

청소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사람들

“이 돈보스코농구대회가 청소년아마추어 대회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대회 출신으로 벌써 10년 넘게 심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즐기며 논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봉사를 하면서도 기쁘고 신이 납니다.” 50회 대회 일정에 맞춰 일부러 휴가를 내고 심판장으로 봉사하는 염창우 씨(광주 동구청 공무원)의 말이다. 돈보스코농구대회는 많은 사람이 수고하여 준비하고 진행하는 아이들의 축제다. 신안동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오랜 기간



1985년 2월 1일, 여섯 개 팀이 참가한 제1회 대회의 장면

the 50th Don Bosco Basketball League



준비하고 대회 운영을 총괄하는 가운데,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심판진, 조선대학교병원 간호사 협회와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모임 돈보스코회, 협력자회 등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아이들의 잔치가 안전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희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의 바이탈을 체크해 주고 혹시라도 혈압이나 맥박에 이상이 있는 참가자가 있다면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심판이나 운영진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방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단아한 외모만큼이나 상냥하고 고운 미소로 아이들의 맥박을 헤아리고 있는 박세영 씨(호남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는 참가 청소년들에게 인기짱이다. 그뿐 아니라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아자동차, 아벤티노, 윌슨 등 기업에서 물품과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아 일주일간의 아이들 농구축제가 더욱 풍성하다.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는 운동장, 운동을 할 수 없는 아이들, 이것이 우리 학교의 현실입니다.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은 너무도 중요한 활동인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운동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

죠. 21세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건강한 시민에 달려 있겠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운동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국민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요즘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이 ‘뛰노는 마당’을 보고 싶어 일부러 개막식에 찾아왔다는 광주 가톨릭대학교 총장 노성기 신부가 아이들에게 들려준 말이다. 노 신부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살레시오회를 칭송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덧붙여 살레시오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개최하고 알려져서 더욱 많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줄 것을 소망했다.

하느님을 만나는 동반

돈보스코농구대회의 창립자는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1985년 당시 수련장을 맡고 있던 노송피 신부다. 1956년 한국 선교사로 처음 파견되었던 청년 시절부터 미수에 가까운 지금까지 60년 동안 한결같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운동장을 비껴간 적이 없는 노 신부는 농구 코트 안에서든 밖에서든 많은 청소년과 후배 살레시오회원의 심성을 기르고 동반했다. 청소년 선수들이 재주를 뽐





내며 바닥을 통통 튀기는 공 소리는 심장의 박동을 닮아서, 노사제의 마음속에 공명을 일으키고 젊음의 열정을 되살려 준다. “진짜 아름다워요. 땀을 흘리며 놀이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가 아직도 내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가 돈 보스코의 품 안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인생이고 기적입니다.”

대회를 총괄하는 오윤택 신부는 “20여 년 전에 농구대회에 참가했던 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와서 대회에 등록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돈 보스코 오라토리오의 매력이고 젊은이의 삶을 동반하는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50차례의 대회에 총 1만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고, 이제는 아들이 아들로 이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죠.”라고 하면서 돈보스코농구대회의 숨은 힘을 자랑한다. 연륜이 쌓이다 보니 이렇게 대를 이어서 돈보스코농구대회에 참가하는 가족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대를 넘겨 발전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대회마다 빠지지 않는 관심 거리로 팔십을 훌쩍 넘긴 창립자 할아버지가 과연 몇 번 만에 3점 슛 시구에 성공하는가이다. 늘 첫 번째 호루라기 소리에 그물망을 흔들어 환성이 울려 퍼지던 힘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삼세번이면 충분할 만큼 노 신부는 이번에도 건재함을 자랑하

며 아이들의 기쁨을 이끌어냈다.

포래들이 그룹을 이뤄 우정을 나누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스포츠만큼 좋은 것을 찾기 힘들다. 더욱이 농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섯 명 이상이 모임을 만들어야만 가능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그룹을 결성하는 데도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돈보스코농구대회의 주제는 ‘농구는 우리의 만남 나눔’이다. 자신들의 팀을 결성하고 다듬기 위한 만남과 나눔이고, 다른 팀들과 모이고 겨루는 가운데 생기는 만남과 나눔이며, 살레시오회원과 봉사자를 통해 자신들을 사랑해 주는 돈 보스코와의 만남과 나눔이고, 나아가 자신의 삶 전반과 만남일 것이고 중국에는 하느님과의 만남과 나눔으로 이어질 것이다. 돈보스코농구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 봉사자들, 회원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여 진정한 만남과 나눔이 이뤄지길 기원한다.



Salesian News

살레시오 가족 소식



살레시오회: 종신서원 · 첫서원

2015년 1월 21일 오후 2시, 살레시오회 관구관 7층 성당에서 양승국 관구장 신부의 주례로 홍훈표(이시돌), 임치성(안드레아), 심재현(치릴로) 형제가 종신서원을 발했다. 한편 1월 23일 오전 7시 살레시오회 관구관 4층 소성당에서 김범준, 최영민, 김윤영, 정봉운, 김형석 형제가 첫서원을 통해 돈 보스코의 아들로 거듭났다.



살레시오회: 사제 · 부제 서품

2015년 1월 23일 오후 2시, 살레시오회 관구관 7층 성당에서 조규만 주교에 의해 강봉묵(마티아), 문수민(마테오), 김진명(갈리스도), 변용관(레오) 부제가 사제로, 심재현(치릴로) 형제가 부제로 각각 수품되었다.



살레시오회: 제27차 살레시오 국제청소년자원봉사단 캄보디아 봉사활동

살레시오 회원 세 명(단장: 신현문 신부, 부단장: 김평안 신부, 지도교사: 이범주 수사)과 봉사자 4명 그리고 청소년 33명으로 구성된 살레시오 국제청소년자원봉사단이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돈 보스코기술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단은 기술학교 담장 페인트칠과 여학생 기숙사 입구 콘크리트 작업을 했으며, 오라토리오 행사 시간에는 현지의 노래와 춤을 배워 공연을 하는 등 봉사과 나눔 그리고 교류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살레시오수녀회: 2015년 연례세미나

지난 12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셋별 관구 연례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3년 로마 국제 마리아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의 정체성과 직결된 자녀됨(Filialità)'이라는 주제 아래 이루어졌다.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의 신원을 재인식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자유발언대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듣는 시간이었다.



살레시오수녀회: 종신서원 · 첫서원

살레시오수녀회 종신서원식과 첫서원식이 1월 6일 관구관에서 있었다. 정순택 베드로 주교가 집전한 종신서원 미사를 통해 세 명(이옥순, 권진숙, 최성희)의 수녀가 그리스도의 정배로 장미화관을 받고 주님께 영원한 응답을 드렸다. 살레시오회 관구장 양승국 신부의 주례로 거행된 미사에서는 네 명(이보미, 조영선, 신보라, 한승희)의 수녀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로 첫서원을 받았다.



살레시오수녀회: 우수 상담기관으로 선정

2014년 12월 20일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주최한 우수 상담기관 심사에서 살레시오수녀회 소속 살레시오문화원 상담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상담실은 1997년부터 시작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시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다.



광주관구



살레시오수녀회: 비데스 필리핀 국제 자원봉사

비데스코리아 소속 10명의 청년(광주지부 8명, 서울지부 2명)들이 지난 1월 8일 ~15일까지 이정미 수녀의 인솔로 필리핀 민도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맹그로브 나무 심기와 현지 어린이들 교육봉사 그리고 망안족 원주민과 만남 등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



서울관구



살레시오협력자회: 2015년 관구 대회 개최

1월 25일(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5층에서 2015년 관구 대회를 개최했다. 관구 대회는 개정된 규칙을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렸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전·광주·창원·제주 지역 지회 참사위원들이 참석했다. 각 지회의 지난해 주요 활동 내용 보고와 올해의 계획을 나누며 협력자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공석이었던 관구 사도직 위원에 이상욱(프란치스코, 구로3동 참사위원장) 형제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수원관구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종신서원 · 첫서원

광주관구: 2월 2일, 임암동 관구 본원에서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세 명(정수현, 김하나, 전수미)의 수녀가 종신서원을 했다.

서울관구: 2월 3일, 방배동 관구 본원에서 서울대교구 유경춘 보좌주교의 주례로 두 명(이은숙, 김신영)의 수녀가 종신서원을 했다.

수원관구: 2월 5일, 수원 관구 본원에서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주례로 세 명(송은옥, 임연우, 백미자)의 수녀가 종신서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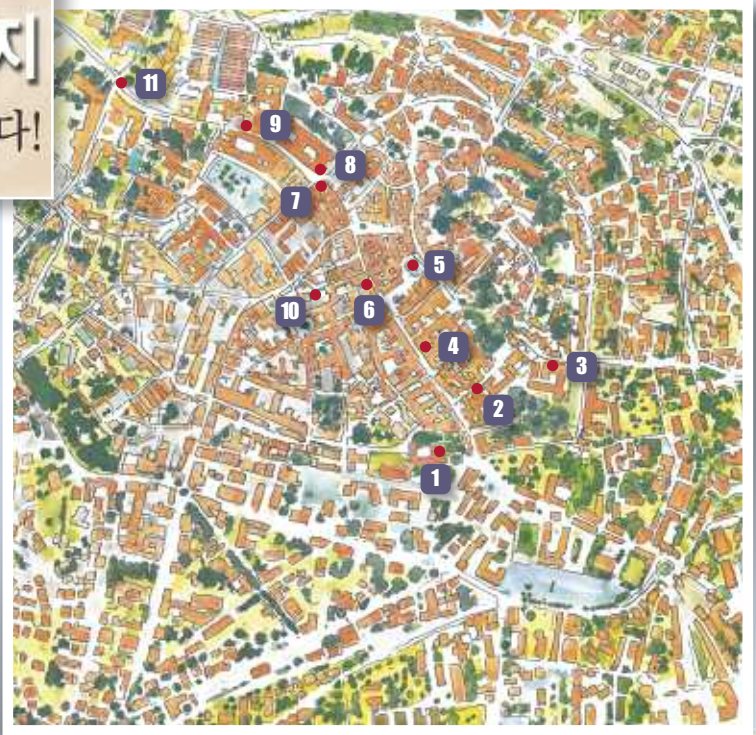
또한, 세 관구에서 각각 첫 서원식이 있었는데, 광주관구에서 두 명의 수녀(정혜란, 이경림), 서울관구에서 두 명의 수녀(나혜영, 최인영), 수원 관구에서 한 명의 수녀(이연자)가 첫 서원을 했다.



돈 보스코 성지

돈 보스코 탄생 200주년
1815 · DON BOSCO · 2015

여기, 돈 보스코가 사셨다!



돈보스코 성지 ③

키에리 Chieri

: 청소년, 도시, 성소

돈 보스코 탄생 200주년의 해를 보내면서 2015년 9월 호까지 1년 동안 연중기획으로 돈 보스코의 장소와 살레시오회의 요람지들을 지상 순례하는 것으로 꾸민다. 이 장소들을 방문한다는 것은 돈 보스코의 탁월한 인성은 물론이고 온 세상에 널리 퍼진 그분의 사업이 발생하고 자라난 본고장을 탐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순례를 통해 돈 보스코 탄생 200주년을 기리며 축하하는 살레시오 가족의 축제에 더 깊이 참여하고, 돈 보스코가 숨을 쉬던 현장의 상황과 정신을 되살려 청소년 구원 사명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한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순서로 돈 보스코가 청년기 10년을 보낸 키에리를 찾아가 본다. 편집부

1 성 도미니코 성당

1841년 6월 8일, 돈 보스코는 문법 과정(1832~1833)의 은사이자 도미니코회원인 자친토 주시아나 신부의 초대로 이 성당 로사리오의 성모님 제대에서 자신의 세 번째 미사를 드렸다. 이날을 회상하면 돈 보스코는 “화요일에 내 은사인 주시아나 신부님이 계시는 도미니코 성당에서 그분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복사를 서 주시는 가운데 미사를 드렸다. 미사 내내 그분께서는 감동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셨다. 그날 하루 종일 신부님과 함께 보냈는데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라고 기록했다.

2 비아 델라 파체와 게토

성 도미니코 성당을 나와 왼쪽으로 돌아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가로 향하는 골목은 평화의 길(비아 델라 파체)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게토가 있는 곳이다. 이 게토는 1723년에 생겨났는데 현재는 그 중 한 집만 남아 있다. 당시 왕 카를로 펠리체는 도시의 히브리인들을 그리스도인들과 떨어진 구역(게토)에 따로 모여 살게 했다. 요한은 이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자기 또래 히브리인 아이들을 사귀었으며, 공립학교 입학이 금지된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쳤다.

골목의 중간쯤에 엘리아 서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1전을 주고 문학 책을 한 권씩 빌려 하루 저녁에 다 읽곤 했다. 골목의 끝에는 ‘요나’라 불리는 자급베레미가 살았는데, 그는 요한과 우정을 맺으며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였고 1834년에 세례를 받았다.

3 프란치스코 수도원과 파체 성당

요한 보스코가 키에리에 살던 시절, 이 수도원에는 많은 수의 수련자들이 있었다. 열아홉 살이던 인문학 과정 중 요한은 자기 성소에 대한 가장 큰 고비를 겪고 있었다. 사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가정의 형편으로는 계속 공부할 희망이 없었다. 사제가 되려면 아직 공립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했고, 2년의 철학 과정과 신학을 배우기 위해 다른 5년이 더 필요했다.

진정 하느님께서 어떤 길로 자신을 부르시는지 자문했으며, 프란치스코회원들은 수도원으로 들어오라고 권했다. 이에 1834년 3월 입회 지원서를 냈고 수련 입소가 허락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수도원 입회를 포기하는데, 첫째로 요한을 위해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아니라 다른 곳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상한 꿈이고, 두 번째는 요한에게 수도원이 아니라 신학교에 들어갈 것을 이구동성으로 제안하는 주셉페 고펠로 신부와 카팻소 신부의 권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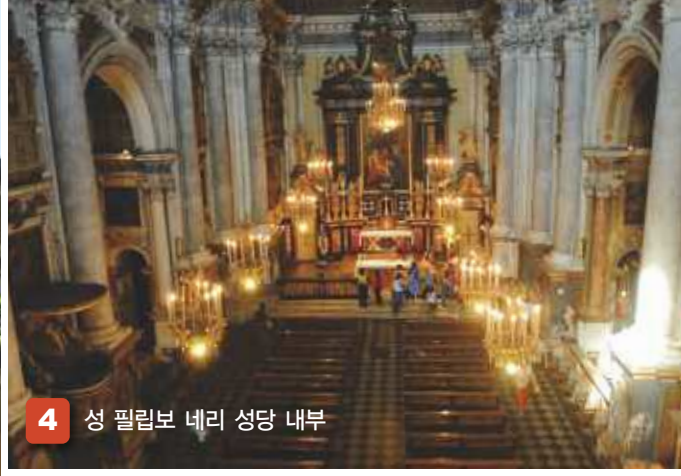
4 신학교와 성 필립보 네리 성당

필립보 네리의 오라토리오 수도회 신학교로 사용되던 이곳은 1829년 토리노대교구의 대신학교로 개편되었다. 신학교는 리볼리로 이전한 얼마 후 키에리시에서 매입하여 1949년 공립학교로 전환했다. ‘ㄷ’자 형태의 건물 구조가 큰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데 중앙 벽에 요한 보스코가 처음 들어와 보았던 해시계가 있다. 그곳에 새겨진 ‘괴로운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디 가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빠르다.’라는 유명한 글귀는 요한의 신학교 생활 동안 좌우명이 되었다.





4 성 필립보 네리 성당



4 성 필립보 네리 성당 내부



4 신학교

성 주세페 카팻소도 공부한 이 신학교에서 돈 보스코는 1835년 10월 30일부터 1841년 6월까지 5년 반을 지냈다. 강도 높은 공부와 절제된 생활 그리고 깊은 묵상과 기도는 요한에게 사제의 정신을 형성하게 해 줬다. 이때 분명하게 자신의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청소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리스도처럼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지상의 것에 더 적게 얽매이고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지향하도록, 죄와 이기주의로부터 치유되도록 이끄는 삶을 살 것을 결심했다. 촌에서 나고 자란 요한이 곡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용서로 모든 사람을 이끌기 위해 수고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요한이 있을 당시에 신자들은 주일이나 축일에만 성체를 영할 수 있었다. 신학생들이 주중에 성체를 영하려면 규칙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에 몰래 이탈하여 한쪽에 있는 성 필립보 네리 성당으로 들어가 성체를 영해야 했다. 장상들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침묵으로 묵인해 줬다. “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주 성체를 영했고, 이것이 내 성소를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현재 운동장 벽에는 아직도 요한이 보았던 해시계가 걸려 있고, 2층 복도에는 어느 날 밤 요한과 그 동료들에게 “나는 구원되었다네!”라고 말한 고몰로의 발현을 기념하여 새겨 넣은 명패가 붙어 있다.

5 맛지니 광장

성 필립보 네리 성당의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 골목길을 100m쯤 올라가면 18세기 키에리 시의 중심부였던 맛지니 광장이 나온다. 시청이 이곳에 있었고 광장에서는 매주 장이 섰다. 이 광장에 있던 건물 중에 성 굴리엘모 성당, 말로리아 신부의 집, 루치아 맛타의 하숙집, 바르조키노의 목공소 등 요한 보스코의 추억이 담긴 곳이 많다.

말로리아 신부의 집: 성당 맞은 편에 대성당의 의전 사제인 마리아 말로리아 신부가 살았던 집이 있다. 말로리아 신부는 요한 보스코의 신학교 생활을 포함하여 키에리에 사는 동안 즐겼던 그의 고해신부였다.

루치아 맛타의 하숙집: 아들의 공부를 위해 키에리



시청 5



말로리아 신부의 집 5



루치아 맛타의 하숙집 5

에 온 루치아 맛타 부인은 자코모 마르키시오의 집을 세내 하숙을 쳤다. 이곳에서 1831~1833년 동안 요한도 매월 21리라를 내기로 하고 하숙을 했다. 이 액수는 요한의 가정이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숙비를 벌거나 감면받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중 하나가 루치아의 아들 조반니 밥티스타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바르조키노의 목공소: 요한이 한가한 때면 이곳으로 와서 가구 만드는 일을 배웠고, 자기에게 필요한 일상용품을 직접 만들어 쓰거나 다른 사람들이 부탁

한 것을 고쳐주기도 했다고 한다.

6 공립학교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45번지에 있는 이 학교에 요한 보스코가 다닌 것은 1831~1835년, 4년간이다. 카스텔누오보의 학교에서 무능한 선생님에게 실망감을 맛보고 키에리 학교로 갈 결심을 했던 요한은 다행히도 이곳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삼아 지성과 인격이 크게 성장했다.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은 고마운 추억을 지니고 있는



맛지니 광장 전경 5

아우스타키오 발림베르티 신부님이다. 그는 미사 복사를 서라고 나를 초대했으며, 도시의 위험을 멀리하라는 등의 좋은 충고를 해주었다. 그는 나를 장학사나 여러 선생님에게 소개하곤 했다.” 요한은 동료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를 벌충하려 애썼고, 첫째 일년 동안에 3개 학년을 월반했다. 이후 이 학교에 다닌 3년간 스승들과 친구들 사이에 깊은 우정의 관계를 형성했고, 특히 ‘명랑회’를 만들어 또래의 친구를 바른길로 인도하는 일종의 오라토리오를 실현했다.

7 카페 피안타

맛타 부인의 집에서 1년 동안 하숙을 한 후 팔라조 디 칠판타 3번가에 있는 이곳으로 요한이 거처를 옮겼다. 이 카페의 주인인 피안타 씨가 카페의 바리스타 자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곳에서 청소하고 저녁 시간에 당구장을 관리해야 했다. 그 대가로 카페의 주인은 요한에게 하숙비를 면제해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줬다. 이곳에서 요한은 커피나 초콜릿 음료수, 사탕 과자, 술과 청량음료수 만드는 법을 배웠다. 먼 친척이기도 한 주인 피안타 씨는 요한의 솜씨를 아까워해 그에게 공부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카페를 맡아 일하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요한의 잠자리는 계단 밑 공간으로 카페에 온 손님들의 음식을 만드는 작은 화덕 위에 있는 매우 비좁은 곳이라 몸

을 조금만 펴도 발이 방 밖으로 빠져나갈 정도였다. 하지만 가장 불편한 것은 시끌벅적한 시장통과 카페의 상황이었다.

주인이 착하고, 요한도 좋은 친구만 사귀려 애썼기에 윤리 도덕적으로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지, 젊은이가 그런 환경에서 하숙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돈 보스코 스스로 말했다.

8 성 안토니오 성당

카페 피안타의 길 건너편에 있는 성 안토니오 성당은 요한이 카페에 머무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미사 복사를 선 곳이다. 사제가 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 찾은 키에리에서 하숙 생활은 고달팠으나 큰 위안은 매일 성당에서 드리는 작은 봉헌이었다. 특히 이곳에서 요한은 ‘명랑회’라는 청소년 단체를 결성하고 회장 역할을 맡았다. 명랑회라는 이름은 모든 구성원이 놀잇거리를 마련하고 유쾌한 대화를 이끌며 서로를 기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서를 하자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누구든 하느님을 모독한다든지 욕설을 내뱉으면 바로 제명되었다. 두 가지 단순한 계명(그리스도인의 품위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삼간다, 공부와 신앙의 의무를 다한다)을 따르던 명랑회는 매 주일에 성 안토니오 성당에서 모임을 했다.



9 재봉사 쿠미노의 집

1834~1835학년도에 요한은 몇 달 동안 이 집의 반지하 방에서 생활했다. 그 반지하 방은 외양간으로 사용되던 곳을 개조한 곳이다. 열악한 상황을 목격한 카팻소 신부의 개입으로 쿠미노는 요한에게 더 나은 방을 제공했다. 재봉사 쿠미노는 쾌활한 사람으로 기발한 농담을 즐겼는데 요한은 그에게 마술이나 다른 재주를 보여줘 깜짝 놀라게 하기를 좋아했다.

10 키에리 대성당: 산타 마리아 델라 스칼라

키에리의 여러 아름다운 성당 중 요한이 아침저녁으로 자주 방문하던 성당이 바로 키에리 대성당이다. 은총의 성모님 제단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 열아홉 살이 되던 1834년 3월, 인문학을 마쳐갈 즈음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들어갈 것을 결심했다. 이를 카스텔누오보 본당 주임인 닷사노 신부에게 알렸고, 닷사노 신부는 요한의 이런 결심을 바꾸도록 권유하라고 맘마 마르게리타에게 말했다. 그길로 키에리에 올라온 맘마 마르게리타는 요한에게 “본당 신부님이 오셔서 네가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니 내게 말리라고 말씀하셨단다. 잘 들어라. 네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길 바란다. 한 번 결심이 서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네 길을 가려무나. 가장 중

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난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가난하게 죽고 싶단다.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아니 오히려 분명히 해두마. 만일 네가 부자 신부가 된다면, 난 네 집 문간에 밭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거라!” 이후 친구인 고몰로와 이 성당에서 9일 기도를 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빛을 주시라고 청원했다. “9일 기도 마지막 날에 대성당에서 드리는 미사에 참석했고, 은총의 성모님 제단에서 드리는 미사의 복사를 썼다.” 그 마지막 날에 고몰로의 삼촌 신부가 보낸 충고의 편지가 도착했다. “수도원에 들어가지 말고, 수단을 입고 신학교로 들어가거라. 계속 기도드리고 성찰하면 하느님께서 네게 월원하시는지 더 정확히 알려주실 것이다.”

11 포르타 토리노 대로

1834~1835학년도에 요한 보스코는 이곳에서 한 마술쟁이와 시합을 벌였다. 명랑회 아이들까지도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도록 꾀어내는 마술사와 벌인 한판 대결이었다. 달리기에서 패배한 마술쟁이의 제안으로 연거푸 멀리뛰기, 마술봉 세우기, 나무 오르기 등 네 가지의 대결을 펼쳐 모두 승리했고 총 240 리라를 땀다. 요한은 명랑회원들에게 점심을 산다는 조건으로 땀 돈을 모두 돌려줬으며, 마술쟁이는 더는 얼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다. 🍀🍀



9



11



10



돈보스코를 사수로 모신 기술자

: 문석원 동문

평생을 먹고 살 기술을 가르쳐주고, 인성을 바르게 세워주는
인생의 학교인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그곳에서 배운
돈 보스코의 마음에 따라 인생을 그리는 한 살레시안의 이야기

편집부

가득이나 배고프던 시절, 어머니에게 내려진 ‘암 선고’는 온 식구를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는 청천벽력이었다. 애절한 어머니의 신음, 허기진 어린 동생의 칭얼거림, 마른 눈처럼 짝짝 갈라진 아버지의 손가락 마디에 깊게 파고든 검은 땀자국, 고향인 속초를 버리고 살길을 찾아 서울로 올라온 가족, 공장 한편에 붙은 허름한 쪽방에서 복닥거리는 고달픈 삶... 문석원 동문(도미니코 사비오, 60)이 회상하는 어린 시절 가난한 삶의 단면들이다.

형님 같고 친구 같던 수사님들

“먹고 자는 것 등 모든 생활을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 안에서 해결해야 했기에 사는 꼴이 말도 아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손가락을 하나 줄이면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유독 그의 시선을 잡아끈 곳이 있었다. 바로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다.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외국 사람들 여럿과 선생님들 모두가 미소로 맞아들이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뭔가 다른 곳이라는 느낌이 팍 와 닿았다.

“성당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던 저는 신부님이 뭘지, 수사님이 뭘지 몰랐죠. 주변에서 이분이 신부님이라고 하니까 신부님이고, 수사님이라고 하니까 수사님이었습니다.”

신부님과 수사님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학생들 가운데서 아이들과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만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식사 시간마다 입맛에도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음식을 늘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경이로움에 빠지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운동 시간에 언제나 농구공이며 축구공을 먼저 가지고 나와 팀 나누기에 분주하던 그분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운동장에서 같이 몸을 부대끼고 땀 흘리며 신나게 놀다 보면 걸모습만 다를 뿐 다들 형님 같고 친구 같았다. 기술을 배우고 공부하며 함께 운동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생활관에서 지내는 시간은 학교라기보다는 내 집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고, 문석원 동문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요긴한 밑천을 이때 마련했다. 인성을 바르게 세운 것이다.



“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내 일생의 사수가 ‘돈 보스코’이기 때문일 겁니다.
”

당시에는 인성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랐으나, 직업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곳은 평생을 먹고 살 기술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인성을 바르게 세워주는 인생의 학교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돈 보스코를 사수로 모시고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했던가! 지금도 기술자가 숙련 과정에 있는 젊은이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이끌어 주는 사수-제자의 관계가 유지되는 소규모 공장에서, 후배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수(교육 담당자, 혹은 팀장)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진다. 술독에 빠진 고주망태이거나 너구리 잡는 골초를 사수로 모신 후배는 그 역시 거의 그렇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내 일생의 사수가 ‘돈 보스코’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궁핍하고 어렵게 지내며 좋지 못한 길로 빠지거나 허투루 산다든지, 지금의 자리가 아닌 훨씬 다른 곳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

만, 이제껏 나름 성실한 기술자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것은 다 사수를 잘 만난 덕이라고 스스로 진단한다.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에서 지낸 세월은 짧지만, 그 1년의 기간(1973년)은 이렇듯 그의 일생을 기동처럼 든든히 떠받치는 가치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렇기에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젊은이를 만나면 어디서 기술을 배웠는지를 꼭 물어보는 버릇이 있다. 혹시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출신은 아닐까 하는 기대에서다. “돈보스코 출신의 후배들은 대부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서 한눈에도 티가 나요.”라며 자신에게 그랬듯이 40년이 지나서도 돈 보스코를 사수로 모신 후배들의 삶이 반듯함에 대견함과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신앙생활의 부침

돈 보스코를 통해 자신이 누린 가장 큰 행운은 ‘신앙’이라고 문 동문은 힘주어 말한다. 1974년 졸업 후 성수동 소재 ‘그레이하운드’라는 버스회사 공작반에 취업을 한 그가 공장 생활의 고달픔과 외로움을 달래고자 찾은 JOC(가톨릭노동청년회)에서 다시금 도요



안 신부(2010년 선종, 살레시오회)를 만났다.

“도 신부님이 그때 제게 사도신경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리도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계속 물으셨어요. 십계명은? 성모송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외울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에서 주님의 기도를 매일 함께 드렸기에 이를 기억하며 저는 막힘없이 외웠습니다.”

도 신부의 얼굴에 피어나던 웃음꽃이 지금도 한가게 그려지는 1975년의 순간을 인생 최고의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 1841년 12월 8일, 토리노 성 프란치스코 성당 제의방에서 있었던 돈 보스코와 바르톨로메오 가렐리의 일화가 연상되는 장면이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나 생계에 떠밀린 그에게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일이 항상 앞섰다. 교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에 성당의 전례가 이해되지 않고 지루하며,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았다. 자연 성당으로 향하는 발길이 뜸해지고 24년간의 냉담으로 이어졌다.

세월이 흐르고 지난 시절을 되돌아 볼 정도로 생

활에 여유가 생기자 가슴에 묻어두고 있던 보물에서 썩이 돌아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먹고살기에 바쁘고 제대로 알지 못해 멀어졌지만, 물이 흘러 낮은 곳으로 모이듯 마음 깊은 곳에 간직했던 그리움이 그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성당으로 다시 이끌었다. 평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성가대 활동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몇 안 되는 최고 선임 중의 한 명으로 남았다. 다시 성당을 찾은 이후로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으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줄곧 주일 미사를 참여할 정도로 충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개교 50주년을 기다리며

이제 곧 회갑. 은퇴를 생각할 나이지만, 아직도 그는 매일 공장에서 12시간씩 기계를 만지며 지낸다. 특히 지난해, 희수(喜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선교지의 아이들을 돕는 모금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은 옛 은사 공 수사를 마주하며 ‘인생에 있어 퇴임은 없다.’는 다짐을 했다. “먹고 사는 기술과 바르게 사는 정신을 가르쳐 주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내게 힘이 남아 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일할 것입니다.” 뭉툭한 쇠덩어리를 1/100mm까지 정확하게 공차에 맞춰 가공하는 일이 그의 직업이듯, 정직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 또한 규격 바르다.

문 동문이 다니던 학교의 모습은 크게 변해 이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이름도 바뀌었다. 하지만, 돈 보스코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게 하는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는 언제나 그의 마음에 고향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개교 50주년이 되는 2017년이 무척이나 기다려진다. 42년 전 첫발을 디딘 시절 가난한 소년의 마음으로 돌아가 은사님, 동기들과 함께 큰 잔치를 펼치겠다는 소박한 꿈과 함께!



ANDREJ MAJCEN

하느님의 종 안드레스 마센 신부 (1904~1999)

살레시오 선교사인 안드레스 마센 신부의 삶은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이끄심이 세 단계로 나눠 기적처럼 펼쳐지며 어떤 것이 바른 삶인가를 보여준다. 마센 신부는 일생을 통해 이를 충실하게 따랐고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이끄심에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느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를 용기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 속으로 파견하시는 삶의 모험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1904~1935)

: 선교사 성소를 준비하는 시기

마센 신부는 1904년 9월 30일 슬로베니아 마리보라는 곳의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안드레이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는 데 항상 앞장섰다. 이런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란 안드레스의 마음에는 “모든 이들에게 잘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는 금언이 새겨졌다. 어머니 메리아 스틱은 신앙심이 깊은 여인으로 아들 안드레스에게 사제가 될 것을 자주 권했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듯하여 안드레스는 사범학교에 진학했다. 어머니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들에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신애론’을 영적 독서로 권하면서 “거룩하신 성모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거라.”고 당부했다. 마리보 사범학교에 다니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읍내에 있는 성모님 성지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의 샘터를 매일 같이 순례했다. 어려움 앞에 물러서지 않고 원하는 목표에까지 정진하는 근면성, 우직함, 과단성이 학창 시기에 그의 품성 안에서 자랐다.

공부를 마치고 마침 론다에 있는 살레시오초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었는데, 그곳의 살레시오회원들은 즉시 그에게 있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식별하고 돈 보스코의 아들이 될 것을 권유했다. 안드레스는 돈 보스코의 삶에 매료되었으며, 돈 보스코의 아들이 되려는 결심으로 1924년 살레시오 수련소에 들어갔다. 수련 기간 동안 의심이나 비방과 같은 시



련을 겪기도 했고, 수련 기간이 연장되는 단련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자신의 성향을 둔 보스코의 정신에 깎아 맞추면서 잘 극복했다.

살레시오회원으로 서원한 후 10년 동안 류블라나-라코브니크의 신학교 생활은 선교 성소를 준비하는 시기였다. 라틴어 성적이 좋지 않아 퇴학을 당할 뻔하기도 했고 당시의 형편없는 영양 섭취와 고된 공부 그리고 작업으로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 베르실리아 주교와 카라바리오 신부의 순교 소식이 들려왔고(1930년), 이에 자극을 받은 그의 마음속에 선교사의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1932년 중국 선교사인 조셉 케렉 신부를 만난 후 자신도 중국으로 떠날 것을 결심했다. 1933년 사제로 수품되었고 1935년 8월 15일 라코브니크의 도움인 마리아 성당에서 선교사 십자가를 받으면서 성모님과 영원히 결속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을 결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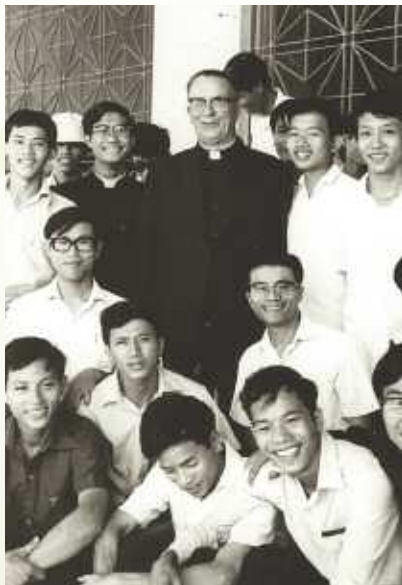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

쿤밍에서 요제프 케렉 신부와 함께한 예방교육의 체험은 하나의 모험이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위한 중국 사람이 될 것이니 중국어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안드레스 신부의 다짐은 옳았고 또 굳건했

다. 중국 사람들을 친형제자매를 대하듯 만나며 짧은 시간에 중국어를 습득했다. 몇몇 선교사들의 거부감이나 원망에 개의치 않으면서 가난한 청소년들과 천민들에 대한 총애를 펼친 결과 선교지의 사람들은 안드레스 신부에게서 좋은 친구요 친근한 아버지 같은 정을 느꼈다.

모든 이에게 겸손하고 열린 자세를 보였으며, 희생과 수고를 마다치 않았다. 이미 당시에 그를 두고 “마센 신부처럼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도 성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심지어 다른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되거나 감옥에 갇혀 고난을 겪을 때도 마우쩌퉁 공산주의자들은 안드레스 신부에 대해서만은 중국의 선익을 위해 일한다고 평가하며 그를 1년 동안 국립학교의 러시아어 교사로 채용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 역시 옥고를 치르고 바로 추방되어 첫 번째 망명을 체험하게 된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고문으로 인한 상처를 추스른 후 마카오에서 다음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했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자마자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 5달러로 한 고아원을 인수했다. 덕분에 550명에 달하는 고아들은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행운을 누렸다. 하지만 곧 북베트남에 공산화가 진행되었고, 마센 신부는 모든 고아를 데리고 남베트남으로



**ANDREJ
 MAJČEN**

피난 내려왔다. 이후 20년 동안 베트남에서 살레시오회가 뿌리를 내리고 꽃피우도록 정열을 바쳐 일했다. 그렇기에 그를 일컬어 사람들은 베트남의 돈 보스코라고 부른다. 원장, 부관구장, 첫 수련장, 특히 봉헌 생활 성소를 불러일으키고 양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큰 업적을 이뤄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베트남의 방식으로”라는 자신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를 옮겨 심은 사람으로 평가된다.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레시오회 회헌을 베트남어로 번역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살레시오 집에 받아들였다.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어 갈 즈음에 서둘러 철수하는 미군의 한 고위 장성이 안드레스 신부와 모든 살레시오회원에게 외국으로 피난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베트남인은 베트남 국민들과 같이 남아야 하며 저도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말로 거절했다. 그러곤 회원들을 두세 명씩 묶어 시골로 피난시켜 모두를 안전하게 살렸다.

베트남의 새 주인인 공산주의자들은 베트남 국민의 선익을 위한 그의 노력과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귀하는 베트남 살레시오회원들을 잘 교육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귀하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라는 정중한 찬사의 말과 함께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조치로 그를 추방했다. 두 번째로 맞이한 추방의 운명이다.

이제 신체적으로 이미 노쇠기에 접어든 안드레스 신부는 다시 타이완으로 자리를 옮겨 황혼의 열정을 태웠다. 새로운 터전에서 명망 있는 영적 지도자요 청소년의 큰 친구로 명성을 얻어갈 즈음 극도로 쇠약해진 건강을 염려한 의사는 6개월 정도 고국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권했는데, 이 여행이 더는 돌아오지 못하는 여행이 되었다.

세 번째 단계(1979~1999) : 고국의 선교사

그가 돌아간 고국 유고슬라비아는 베트남과 우호 관계를 맺은 사회주의 국가였기에 안드레스 신부에게 어느 정도 베트남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따라서 그는 세상과 베트남 살레시오회원들 사이의 유일한 연계 고리의 역할을 했다. 루비아나에서 후



원회를 조직하여 물품들과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조심스럽게 베트남으로 보냈다. 이 20년 동안 베트남의 살레시오회원들, 베트남의 서민들, 중국의 지인들, 수도회의 장상들, 협력자들로부터 받아들인 수많은 편지는 한결

같이 안드레스 신부를 ‘베트남의 돈 보스코’, ‘모세’, ‘할아버지’, ‘아버지’ 등으로 부르며 이 하느님의 사람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있다.

1983년 사제서품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선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영성적인 삶의 정진에 몰입한다. 이 시기에 영적 일기를 기록하여 남겼는데 그 분량이 자그마치 6,500페이지에 달한다. 이 영적 일기들은 네 개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매일매일의 묵상을 기록하고 있다.

- 세례의 날: 하느님의 자녀가 됨,
- 수도 서원의 날: 살레시오회원이 됨,
- 사제품의 날: 그리스도의 사제가 됨,
- 선교 십자가를 받는 날: 그리스도의 메신저와 사도가 됨.

이 영적 일기는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삶을 살레시오회원의 일상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보물이다. 수많은 교구 사제들과 여러 다양한 수도회의 수도자들이 찾아와 그에게서 영적 지도를 받고 고해성사를 했을 뿐 아니라 신자들도 그리스도인 삶의 위로와 가르침을 받으려 몰려들었다.

그는 자주 95세까지 살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 95세가 되던 1999년, 정확하게 자신이 태어난 날인 9월 30일에 마치 다 타버린 한 자루의 촛불이 꺼지듯이 그렇게 숨을 거두고, 하늘 나라 돈 보스코 정원의 시민으로 태어났다. 안드레스 마센 신부에 대해 그의 성덕을 높이 평가하는 고향 사람들의 노력으로 2010년 9월 24일 시복시성 교구조사를 마쳐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되었고, 교황청의 시복시성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엄마와 말하기 싫어요

요즘 내 아이가 변했다!
집에 오면 종일 있었던 일을 신이 나게 늘어놓던 아이가
언제부터가 부쩍 과묵해지기 시작했다.
엄마를 피해 공연히 스마트폰을 만지작대거나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아이.
왜 아이는 엄마에게 말하는 걸 싫어하게 되었을까?
편집부



자녀

말해 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일단 엄마한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궁금한 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면 되고, 필요한 건 용돈 모아서 제가 사면 되고, 또 먹고 싶은 건 친구들이랑 나가서 먹으면 되니까요. 괜히 말했다가는 쓸데 없이 돈 쓴다고 혼날까 봐 굳이 먼저 얘기를 꺼내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화장품이나 제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말하면, 처음엔 좀 들어주시다가 공부나 더 열심히 하라고 해요. 또 장래 희망 같은 걸 말해도 결국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고 하니 재미가 없어요. 엄마랑은 어떤 얘기를 해도 공부로 끝나는 거 같아요.

지아람(고등학생)

부모

왜 말을 하지 않는지 너무 답답해요.

어렸을 땐 틈만 나면 나에게 쫓르르 달려와서 온종일 있었던 일을 묻지 않아도 쉴 새 없이 얘기했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통 말이 없어졌어요.
제 아이는 평소 친구들과도 활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에요. 밖에서는 재잘대며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무뚝뚝한 로봇으로 변해버려요. 아이와 대화 좀 해보려고 “오늘 학교에선 어땠어?”, “공부는 힘들지 않아?”, “어디 가는 거야?” 등 몇 번을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 혹은 “알겠어요.” 같이 찝찝한 말뿐이에요. 게다가 제 말은 듣지도 않고서 대답만 대충 해버리고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또 가끔은 대답도 안 하고는 문을 활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해요. 살갑기만 했던 제 아이가 왜 갑자기 변한 걸까요? 정말 걱정이예요.

최은숙(학부모)



현실적인 문제에 앞서 자녀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와 점점 대화하지 않으려 하고, 그런 자녀를 보며 귀엽기만 했던 어렸을 때와 달리 자꾸 거리감을 느낀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녀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한다는 엄마들의 고민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고요. 자녀는 엄마의 간섭을 귀찮아하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말인데도 자꾸 잔소리로 들린다고만 합니다. 한창 예민할 때인 자녀를 이해해보려고도 했지만 얼음처럼 냉랭해진 자녀의 태도에 엄마는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화가 안 돼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가 영어 시간에 새로 오신 파란 눈의 외국인 선생님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이에 엄마는 외국인 선생님이 발음은 좋은지, 가르치는 실력은 훌륭한지 등 자녀의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가 오늘 영어 숙제는 다 했는지가 궁금해지고 금세 화제는 공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자녀를 좋은 길로 이끌고 성공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부모의 책임감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을 테지만, 자녀는 낯설고 신기했던 자신의 감정을 엄마에게 마음껏 표현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낍니다. 말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가

'일방적인' 해결책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는 자녀의 얘기를 들은 부모는 앞을 똑바로 보지 않고 뛰어다니고 자녀를 질책하고, 좀 더 조심해서 놀라고 당부합니다. 감정이 예민한 사춘기 자녀는 다쳐서 속상하고 놀란 마음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나를 혼내는 엄마'로 생각하기 쉽고, 따라서 부모와 대화하려는 의지를 점차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가 대화하고 싶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존중 그리고 부모의 생각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려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와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자세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며 관심을 기울여 줄 때,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수용해 준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녀의 대화 의지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읽기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음성이나 문자와 동시에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분과 욕구를 알아차려 주고 공감을 통해 마음을 읽어 줄 때 자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연 부모와 함께 자기 생각과 고민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자녀의 여러 가지 소소한 사항에 대해 아이의 입장에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 주는 '작은 공감'은 자녀와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숙재(상담교사)





청소년이 행복해지려면

가족 유대에 대한 결손이 아동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즘. 부모가 자신과
더 많이 시간을 갖고, 놀아주는 일
그리고 부모가 서로 사이 좋게 지냄을 통해
아동은 그 자체로 무한한 위로를 받고 마음이
든든해질 것이다. 또한, 아동이 건강하기 위해서
먼저 보육자의 건강과 행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박은미 품 심리상담센터 원장



요즘 들어 ADHD(집중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거나 그 증상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아동마다 양태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보육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동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 대체로 아동들에게는 보육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사례 하나를 만나보자.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ADHD 진단을 받고 한달 정도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약을 끊고 근처 복지관에서 미술치료를 다니는데, 주위에서 상담을 지속해서 받는 게 좋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가정 사정이 좀 복잡해서 현재 아내와 이혼 수속 중이고, 아들은 제가 키우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상담이나 부모 교육 등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치 않아 부담스럽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오전 2시간은 일반 학급에서 공부하고, 2시간은 단독 수업을 받습니다. 속 모르는 남들은 제 아이가 학교 측으로부터 별도의 배려를 받고 있으니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일반 학급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고 싶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킬까 합니다.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캠프 같은 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김명우(가명), 30대 후반-

사례에 나온 아버지처럼 요즘 부부가 거의 맞벌이이고,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가족 유대에 대한 결손이 아동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아동이 느끼는 심리 증상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전화 문의 후 실제로 아동이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는 반 정도인데, 아동을 만나 보면 낯선 환경에 놓인 초반에는 회전의자를 빙글빙글 돌리거나 끊임없이 두리번거리고 이야기 도중에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든가 하는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잘 받아주면서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아동은 곧 차분해져 자기 이야기를 잘 풀어나간다. 수다쟁이다 싶을 정도로 달변인 아동도 꽤 많다.

ADHD 아동이 거의 초등 저학년생이니 상담 첫날은 대체로 보육자가 따라온다. 따라서 상담 첫회기는 아동과 보육자가 일상적으로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보통 보육자가 아동보다는 상대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높은 편이지만, 보육자는 아동이 자주 만나는 친구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작지 않은 충격을 받는다. 두 사람

이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도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흥미로운 것은 아동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가 자신과 더 많이 시간을 갖고, 놀아주는 일이다. 그리고 부모가 서로 더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아동은 보육자가 상담에 참여한 일 자체로부터 무한한 위로를 받고 마음 든든해 한다. 필자의 경우는 어떤 일로 상담에 참여하던 청소년(아동) 상담은 장기로 진행하지 않는다. 아동보다 보육자가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상담이 진행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보육자는 대부분 상담에 응하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자신에게 힘을 북돋우고, 아동과 더 좋은 관계 맺기와 소통 방법을 배워나간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조부모이든 가정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가정의 리더로서 전보다 더 자신감과 힘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은 보육자가 전화로 자녀 상담 문의를 해 올 때, 자녀의 문제만을 열거하면서 보육자 자신은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우이다. 보육자가 특별한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은데도, 발달기 상의 특성상 청소년 자녀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도 어른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녀가 지닌 심리적인 문제는 가족 전체의 역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자녀 한 사람만이 아닌 가족 모두가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담이나 교육을 제안받은 보육자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거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등의 나름 '합당한' 명분을 내놓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담자의 제안을 자녀의 문제가 보육자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말로 칭취하면서 제안에 응하기를 꺼린다. 보육자와 아동간의 관계의 질이나 역동은 고사하고, 그저 아동이 드러내는 '문제'만 치유하면 된다는 태도이다.



우리나라 청소년(10~19세)의 사망률은 교통사고-자살-암-익사 사고-심장 질환 순으로, 자살은 청소년 사망 원인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예년보다 청소년 자살률 자체가 매우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은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더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청소년기는 인생 어느 시기보다 누군가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에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계의 양이나 질, 그리고 영향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 자살 유발 요인이 부모 사이의 불화, 부모-청소년 자녀 관계상의 불화,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친구 관계에서의 불화 등 가족이나 청소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갈등과 불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역시 이런 청소년기의 특징을 반영한다.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고 꿈나무라고 자주 일컫지만,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그런 메시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지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 본다. 자살을 비롯한 각종 청소년 문제가 발생한 뒤 대처하기에 급급하기보다 미리 예방하는 어른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청소년이 건강해지려면 우선은 보육자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보육자인 우리 어른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살피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은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 

폼 심리상담센터

02) 845-2080 empark932@hanmail.net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살레시오 가족지

학교로 배송되어 오는 가족지를 교탁 위에 올려두었더니 반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퀴즈까지 풀어두었네요. 앞으로 인사도 열심히 하겠다며 신이 난 아이들을 보니 가족지에 실린 좋은 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전민경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친구에게 선물 받은 가족지를 읽어보니 감동이 벅차올라 모든 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한결 용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권경숙 / 경기도 안양시 동안로

여는 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큰 과제 '청빈'

"예수님께서 가난하셨지만, 가난을 비참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란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 역시 물질만능주의 앞에서 노예가 된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봅니다. 청빈한 삶을 살아가신 돈 보스코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자발적이고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으로 묵상해봅니다.

임성필

'청빈'. 이 말이 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빈부가 있음을 볼 때마다 씁쓸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청빈과 친해지도록 노력하리라 다짐해봅니다.

이지현 / 경남 창원시 성산구

Cover Story: 원선오 신부와 100개 마을학교

미수(米壽)의 나이에도 지치지 않으신 원선오 신부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저 또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 다지며 기도합니다.

조양미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재기발랄하게 자라는 남수단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원선오 신부님 이야기가 추위를 몰아내는 훈풍만큼이나 따뜻하네요. 소원 성취하시길 기도합니다.

오기쁨 / 서울 성북구 장위로

남수단 100개 마을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 원선오 신부님의 헌신적인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신부님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서영순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남수단에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너무나 수고하신 원선오 신부님! 예전에 성당 반주자 모임에서 신부님을 만나 보았던 인연이 있는 저는 요즘도 성가(좋기도 좋을시고)를 부를 때 가끔 신부님 생각을 합니다. 그땐 참 젊으셨었는데... 지금은 백발이 다 되신 신부님이 주님 은총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면 좋겠어요. 신부님은요?

박순자 / 전남 나주시 송월동

처음 원선오 신부님의 100개 마을학교 계획을 보며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후원도 못 하는 저(80세 넘은 할머니)는 옆드려 하느님께 꼭 이루어 주십사 하고 기도만 드렸습니다. 한데 벌써 목표의 1/3인 33개의 학교가 완성되었고, 건설 중인 학교도 18개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고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김근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연중기획: 돈 보스코 성지②

돈 보스코 성지② 중 성인께서 머슴살이한 사연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동병상련의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성인처럼 이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있고, 특히나 기도 안에서 제 삶의 방향을 인도해주시길 간청하겠습니다. 살레시오 수도회의 정신과 활동에 기도와 응원을 보냅니다.

염세실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평소 요한 보스코 성인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영옥 / 경남 김해시 외동

함께하는 사람들: 돈 보스코의 이야기꾼으로 지낸 12년

돈 보스코의 이야기꾼으로 12년을 지낸 신태홍 라우렌시오 형제의 이야기가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김분희 / 경남 김해시 외동

생명을 주는 가족: '나'에 대한 이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르는 부분이 많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마음에 깊숙한 울림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도형 / 서울 강북구 노해로

Quiz

가족지를 꼼꼼히 읽고,
퀴즈에 참여하시어 선물도 받아 가세요.

응모 방법

가족지 기사 안에서 제시된 **문제의 답을 찾아 아래쪽 표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남은 글자를 조합해 하나의 단어를 만들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정답을 부착된 독자엽서나 이메일(dbm@hanmail.net)을 통해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과 주소도 잊지 말고 보내 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 드리며
당첨 결과는 다음 호 가족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 마감 3월 20일

문제

- 제50회 돈보스코농구대회的主題는 “농구는 우리의 ○○○○”.
- 돈 보스코가 1831~1835년간 다니던 공립학교에서 만들었던 단체(또래 친구들을 바른길로 이끌었던 단체)의 이름은? ○○○○
- 하느님의 종 안드레스 마센 신부는 어디의 돈 보스코라고 불렸을까요? ○○○○
- 몽골의 제2의 도시는? ○○○○
- 자녀와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자세는? ○○

만	베	나	청	가	다
경	성	명	항	남	랑
늪	남	회	정	르	트



129호 당첨자 염세실, 김도형, 이혜선

지난 호 정답 : 영훈구원

작은 정성이 큰 사랑을 이룹니다.

많은 분이 가족지를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10. 1. ~ 2015. 1. 31.)

김영식 20,000	강경자 20,000	강문희 20,000	강선경 10,000
강성범 50,000	강연중 20,000	강인면 10,000	강인진 20,000
강찬희 40,000	강혜경 100,000	고동우 10,000	곽성도 20,000
구본옥 20,000	구영웅 100,000	국금숙 60,000	권빛나 40,000
권택용 5,000	기영우 20,000	김경순 60,000	김경은 800,000
김경조 40,000	김교순 20,000	김귀석 10,000	김도형 10,000
김동숙 10,000	김동순 20,000	김모식 10,000	김미경 10,000
김미영 40,000	김민수 60,000	김방진 200,000	김병수 60,000
김병재 30,000	김선희 20,000	김성준 20,000	김성환 10,000
김송지 40,000	김수희 5,000	김 숙 80,000	김숙자 10,000
김수중 30,000	김숙희 100,000	김승녀 20,000	김억래 160,000
김여숙 5,000	김연정 80,000	김영금 20,000	김영길 100,000
김영순 10,000	김영옥 30,000	김영자 20,000	김영춘 40,000
김영환 20,000	김옥자 30,000	김옥희 30,000	김영태 120,000
김은숙 5,000	김은정 30,000	김재임 50,000	김정규 10,000
김정수 80,000	김정열 150,000	김정옥 20,000	김정원 20,000
김정화 30,000	김정희 5,000	김종미 20,000	김준구 20,000
김찬용 20,000	김천옥 45,000	김춘자 30,000	김태환 40,000
김현숙 400,000	김현우 120,000	김형석 300,000	김혜림 10,000
김혜숙 30,000	김혜진 30,000	김호순 200,000	나경환 200,000
나홍술 40,000	나지영 5,000	나혜진 60,000	나숙희 10,000
노옥희 10,000	노일철 40,000	라지영 5,000	류숙현 20,000
류재언 30,000	문순자 200,000	문정애 50,000	민지현 100,000
박경신 60,000	박동석 20,000	박명수 15,000	박명순 5,000
박민중 20,000	박봉옥 20,000	박상진 120,000	박수경 120,000
박숙연 20,000	박순향 50,000	박순희 10,000	박승례 80,000
박영배 80,000	박월자 70,000	박인순 40,000	박재홍 100,000
박정식 20,000	박정희 10,000	박준용 40,000	박지원 10,000
박해임 40,000	박형근 60,000	박혜자 5,000	박 홍 20,000
방준혁 40,000	백동숙 10,000	백용훈 100,000	보은생선녀 50,000
서수진 5,000	서순현 40,000	서정홍 50,000	서준석 30,000
서진옥 80,000	서현숙 30,000	손화정 40,000	송우영 20,000
신선자 5,000	신순일 40,000	신영미 30,000	신영숙 10,000
신준혁 120,000	신중식 30,000	신혜자 5,000	안계윤 30,000
안명옥 20,000	안순옥 60,000	안양미 30,000	양대동 40,000
양은영 30,000	양은혜 100,000	양지원 10,000	양창현 20,000
양천수 20,000	양필수 20,000	염정옥 60,000	오동원 100,000
오영순 80,000	요한보스코 40,000	유기림 10,000	유순애 20,000
유우주 20,000	유춘자 20,000	유혜남 50,000	윤금봉 5,000
윤옥자 8,000	윤주연 20,000	이강선 90,000	이경희 60,000
이금순 20,000	이금희 20,000	이미희 20,000	이민호 15,000
이복순 40,000	이봉례 5,000	이상정 40,000	이선일 10,000
이상숙 5,000	이승하 20,000	이안나 50,000	이애지 20,000
이영란 120,000	이영자 40,000	이옥자 20,000	이완수 20,000
이원화 200,000	이유진 10,000	이은재 20,000	이은주 30,000
이재경 60,000	이정섭 10,000	이정숙 80,000	이정순 20,000
이정아 40,000	이정향 50,000	이정희 10,000	이중순 20,000
이종유 20,000	이춘숙 60,000	이한주 20,000	이희자 40,000
임은량 20,000	임정숙 40,000	임청렬 100,000	장경자 5,000
장대수 50,000	장대순 5,000	장쌍례 30,000	장영자 40,000
장은주 6,000	장인엽 10,000	전명란 10,000	정동채 50,000
정선수 100,000	정은희 20,000	정한봉 30,000	정현숙 40,000
정희진 30,000	조병남 20,000	조병옥 100,000	조윤선 20,000
지성례 20,000	채커리나 30,000	채중숙 20,000	천무석 36,000
최경성 40,000	최기화 10,000	최덕순 10,000	최란수 20,000
최상길 100,000	최순애 30,000	최옥색 40,000	최춘자 50,000
최향례나 10,000	최화섭 10,000	추연일 10,000	하선유 5,000
한미경 40,000	한봉수 20,000	한현옥 10,000	한현정 10,000
함성호 10,000	홍서민 50,000	홍승완 20,000	홍택순 15,000
황순필 120,000	황영자 60,000	황영희 80,000	황옥연 30,000
황지연 20,000	황홍동 40,000	익명(55명) 969,000	

돈 보스코의 정신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58-01-0018-441, 예금주 살레시오가족)



사랑으로 신뢰信賴를 인양^力揚하자!



세월호 참사는 소중한 인명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를 앗아 갔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사랑으로 신뢰를 회복하자!

편집부

이어지는 참사, 신뢰의 상실

지난 2014년은 우리 사회에 큰 불안감을 던져 준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 2월 17일 경주에 위치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 중이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4월 16일에는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과 제주도 간을 운항 중이던 세월호가 침몰해 승객 29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아직도 9명은 실종 상태에 있으며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에는 지독한 한기가 불고 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꽃다운 우리의 청소년들이었다. 이외에도 화재, 군 관련 사고, 부실 건축물에 의한 사고 등 일상을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연일 매체를 장식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수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위정자들은 능숙한 태도로 이 모든 위기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주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放棄)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책임지고 공동

체를 돌보는 리더십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무기력과 불신을 경험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외부 사건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청소년들은 작년 한 해 벌어진 일련의 일들로 인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상실했다. 2014년 8월 20일 한 언론사와 교육 관련 연구소에서 합동으로, 이른바 ‘세월호 세대’로 불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가 위기에 처할 때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46.8%이던 것이 참사 이후에는 7.7%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도층이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믿음’은 6.8%에 그쳤으며 ‘언론에 대한 신뢰’도 43.1%에서 12.4%로 급락했다. 사회적 불신의 증가는 비단 공적 기관이나 국가 지도자들을 상대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신뢰는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도 무너져 내렸는데,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은 세월호 참사 이전 66.4%에서 참사 이후 36.1%로 급감했다. 세월호는 304명의 소중한 인명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



강한 성장에 근간이 되는 개인적·사회적 신뢰도 함께 품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돈 보스코, 사랑을 통해 무한 신뢰를 얻다

신뢰는 대상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을 때 결정적으로 형성된다. 상대방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신뢰하는 상대를 위해 목숨도 내던질 수 있는 용기도 지니게 된다.

신뢰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델을 지니고 있다. 그는 바로 청소년들의 무한 신뢰를 받으며 청소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 덕스러운 인물 요한 보스코 성인이다.

돈 보스코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는 대단했다. 1846년 7월, 돈 보스코가 폐렴 증세로 쓰러져 위독한 상황에 처하자 오라토리오의 수많은 청소년이 앞다투어 돈 보스코를 보려고 몰려들었고, 병의 치유를 위해 평생 목주기도를 바치겠다고 언약을 맺고 평생 빵과 물만 먹으며 고행하겠다고 약속한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돈 보스코를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겠다'는 오라토리오 청소년들의 엄숙한 다짐과 증언들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1855년 돈 보스코를 무한히 신뢰했던 복자 미켈레 루아는 돈 보스코에게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순명, 청빈, 정결 서약을 했다. 또한, 1859년 12월 18일에는 17명의 청소년과 성직자가 돈 보스코의 초대에 따라 살레시오회 설립을 찬성하고 결의했다.

이 초대에 응할지에 대한 고민의 과정에서 소년 칼리에로가 "수도승이든 뭐든, 난 돈 보스코와 함께 남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돈 보스코는 청소년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었고, 돈 보스코의 요청대로 자신의 일생마저도 바치게끔 하는 큰 덕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돈 보스코로 하여금 청소년들로부터 그렇듯 큰 신뢰를 받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살레시오 가족에게는 낯설지 않은 "사랑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라는 돈 보스코의 말씀이 의미했던 바로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단



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그 사랑. 청소년을 위해 일하고, 청소년을 위해 공부하고, 청소년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사랑으로 신뢰를 얻었다.

오늘날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바로 돈 보스코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랑의 부재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보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더 염려하는 리더십, 사랑받기 위해서는 학력·재력·외모·인맥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속삭이는 교육 풍토, 정의가 상실되고 진실이 왜곡되는 사회적 환경 안에서 청소년들은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돈 보스코처럼 청소년들이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랑에 대한 재해석: 정보 공유와 참여 유도

신뢰 회복의 답이 사랑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처럼 권위적인 어른의 일방적 보호를 오늘날의 청소년은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다.

문제 해결은 철저히 어른들의 몫으로 남겨두

고 청소년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배려한다 해서 청소년들이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오늘날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

여기에 ‘사랑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될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오늘날 청소년을 그들이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길 이 유용할 것이다.

첫째, 청소년과 가급적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걱정할 문제’, 달리 말하면 ‘아이들은 몰라도 되는 문제’가 따로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익숙히 경험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기성세대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가히 탁월하다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청소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식이 훨씬 유용할 때도 많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지니는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떤 문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숨김 없이 모두 공유하면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강한 신뢰가 형성된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오해와

“

돈 보스코는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하여 그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당당한 시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에 걸맞은 사랑의 전달 방식이다.

”



© 신주옥

의심이 사라지고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노력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신뢰가 공고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난 초봄 차가운 바다를 향해 몸을 누이던 배 안에서 그 어느 누군가가 승객들에게 모든 상황과 정보를 공개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독려했다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안타까운 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모두 함께 그 위기를 극복했을 것이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과 행동의 장으로 청소년을 초대’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청소년들은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자신이 강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구의 결과들을 참조하면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유연하고 본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경직된 사고를 지닌 기성세대보다 청소년의 시각이 고정관념과 과도한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 문제를 잘 파악하고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가정의 따뜻한 구성원이요,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당당한 시민으로 인정받겠다고 느낄 때 그들은 사랑을 느끼고 기성세대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돈 보스코는 사랑으로 청소년들의 무한 신뢰를 얻었다. 돈 보스코는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하여 그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청소년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식들이 있었다. 허기를 채워 줄 빵, 잠을 잘 수 있는 집, 다정한 말투와 친절함 미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업훈련과 권위 있는 영적 가르침. 이 모든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사랑의 전달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은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당당한 시민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에 걸맞은 사랑의 전달 방식이다. 그들은 자신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국가, 그리고 자신들과 토론하고 자신들의 논리에 승복할 줄 아는 부모,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파트너로서 함께 땀 흘려 일할 준비가 된 교육자로부터 강한 사랑을 느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랑으로 차가운 바다 깊숙히 침몰한 청소년들의 신뢰를 인양하자.



몽골 선교지 이야기

2007년 도움이신 마리아의 인도로 시작한 몽골 선교사업.
8년이 지난 지금, 조금씩 확장되는 사업을 바라보며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전체 인구의 65%가 젊은 층이기에 희망이 있는 몽골 선교사의 삶 이야기

박혜자 수녀 살레시오수녀회

몽골에서 살레시오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2007년 저희 살레시오수녀회가 한국진출 50주년을 맞아 감사의 표시로 몽골 선교를 시작한 것은 모두 기억하시지요? 몽골에서 우선으로 필요한 일이 교육사명이라고 판단하여 몽골교회와 함께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시작 단계부터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며 5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연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혜와 여러 고마우신 분들의 도움 덕분에 2012년 6월 학교 건물의 외부를 완성할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2013년 9월에 먼저 병설 유치원 인가를 받아 개원하였고, 2014년 8월에 마침내 초등학교도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원생 90명과 초등학생 22명이 교직원 15명 그리고 수녀 3명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 마음과 사랑으로 몽골의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성모님의 보호와 여러 후원자분의 도움과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섭리로 몽골에서도 좋은 동역자와 선의의 협력자들을 보내주시어 어려웠던 정부인가를 받고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기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청소년 교육을 위한 선교수도회로서 처음부터 필리핀,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등 4개국 출신



몽골학교 공동체 수녀

수녀들이 국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필리핀과 오스트리아 자매가 건강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하고 지금은 한국 3명, 인도 2명, 일본 1명 등 모두 6명의 수녀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 올란바토르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외에도 학교 건물 옆 공터에서 '토요 오라토리오'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근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히 먼 거리의 아이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간단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또 몽골 제2의 도시인 다르항에서는 도움이신 마리아 본당과 돈보스코센터에서 살레시오회 형제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르항의 도움이신 마리아 본당은 몽골 전체 6개 본당 가운데 청소년이 가장 많고

영세자가 꾸준히 탄생하는 생기 넘치는 사목터이기에 성소 활성화를 위한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몽골 땅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파견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올해 2015년에는 학교 근처에 살레시오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센터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장(場)이자 선교 활동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역민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 활동을 펼치고 더불어 그 안에 현재 학교 교실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수녀들의 숙소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추진 중입니다. 몽골은 학교 내에서의 종교 활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별도의 교육 선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이곳의 지역 여건도 저희에게 이 일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주위가 5층 서민 아파트 단지로 계획되어 1차 분양이 끝났고 2차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까지 3차가 완성되면 1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위 변두리 마을이 형성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석탄 난방을 하고 있어 3명의 화부가 철저한 3교대제로 계속 난방을 돌리고 있습니다. 몽골은 연중 8개월 동안 난방을 해야 하며 특히 겨울에는 혹한이라 동파 방

지를 위해 휴일이나 방학 중에도 난방을 계속 가동해야 하는 무거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추운 나라이긴 하지만 해발 1,600m의 건조한 고원지대이기에 햇볕만 있으면 추위 체감도가 한국보다 덜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하 23~27도이니 냉동실 온도임을 아시겠지요? 저희가 도착한 2007년에는 영하 37~40도까지 내려갔답니다.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9천여 평의 학교 대지, 나무 한 그루 없는 삭막한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궁리하다가 2014년 봄에 학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비타민 나무라 일컫는 과실수 ‘차찰강’ 900그루와 울타리 나무 1천 그루를 심었습니다. 비가 와서 약 90%가 살아남았지만,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몇 그루가 소생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푸르게 하자는 목표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친환경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학부모들에게도 전달되어 한 유치원 아이의 할아버지가 3년생 잣나무 2그루와 2~3년생 소나무 6그루를 기증해 주었습니다.

몽골은 희망이 있는 살레시오 교육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35세 미만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65%라는 미래지향적인 현실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는 오르비트는 울란바토르시의 외곽 지대로 전국 각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가난한 유목민이 대다수



몽골초등학교 개교식



초등학교 수업



몽골학교 건물





아침 운동

입니다. 일자리를 얻거나 먼저 이주해 온 친척들의 울타리에 거처만 생기면 시대로 떠나는 관계로

매월 2~3명의 아동 이동이 있습니다. 연중 가장 추운 1~2월은 등원 아동 수가 50% 정도인데 부모들의 일자리가 없어 원비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료교육을 해온 기존의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저희는 약간의 학비를 받고 있지만, 전체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해 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돈 보스코 교육의 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정이 깨지는 현상은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도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 엄마가 재혼하기 때문에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결손가정 아이들 문제입니다. 5세 반 한 아이는 모든 선생님이 아는 상 개구쟁이로 학년 초에 담임 선생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 선언을 해서 급기야는 엄마를 불러 최후통보까지 했지만, 모두의 한없는 인내와 저희의 돈 보스코 교육 방법을 통해 그 아이 안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우리 수녀들에게 “사랑해요”라며 자기표현을 하고 있어 무척 기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멀지요. 교육은 백년대계이기에 저희는 씨 뿌리며 물 주고 가꾸어 훗날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과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교육 덕분임을 알기에 이곳 사람들은 우리 학교 입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교육센터도 건립되면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 되는 길이 열리게 되리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몽골 선교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몽골의 교육 선교센터는 한국 살레시오수녀회 담당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모든 시설과 운영 관리비를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후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체류 비자를 받는 것이 아주 까다롭고 비자 발급 시 쿼터제(할당제)를 적용하여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저희는 법의 규제를 뛰어넘는 사랑의 증거를 삶으로 실천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살레시오 가족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몽골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901-182964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The Salesian Bulletin of Korea

설립자 성 요한 보스코(1815~1888)
발행처 살레시오회 한국관구
발행인 양승국
발행일 2015년 3월 1일(격월간)
발행부수 13,000부
편집처 돈보스코미디어
편집인 서정관
편집 이준석, 신민수, 김기림
디자인 이홍
편집자문위원
신현문, 전미숙, 윤진영, 최인순
주소 우)150-86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전화 (02)828-3535
FAX (02)828-3538
E-mail dbm@hanmail.net
홈페이지 ibosco.net
등록일자 1997. 8. 13
등록번호 서울 마02669

살레시오 가족이란

살레시오회, 살레시오수녀회,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돈보스코재속회 등 돈 보스코의 청소년 교육 사명을 수행하는 수도·봉헌생활 단체들과 살레시오협력자회, 남·여 동문회 등 평신도 단체 그리고 이런 단체에 소속되지는 않았어도 청소년을 사랑하며 돈 보스코와 같은 교육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돈 보스코가 시작한 일을 돕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살레시오가족지는

- ▶ 살레시오 가족을 하나로 묶는 일치의 끈으로, 우리 시대의 종교·문화·사회적인 주제들을 돈 보스코의 교육적인 마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주어지는 돈 보스코의 선물로 세계 56개 나라에서 29개 언어로 연간 1000만 부 이상 발행합니다.
- ▶ 돈 보스코의 정신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58-01-0018-441
예금주 살레시오가족



돈 보스코 대희년에

임경숙 수녀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광주관구

청소년의 아버지 돈 보스코의 탄생 200주년!
 그리고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설립을 창안하셨던
 가정자 돈 치마티의 귀천 50주년!
 이렇게 은혜로운 2015년은
 우리 살레시오 가족들의 대희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
 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
 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
 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
 이다.”(요한 3,16-17)

성부의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
 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에 사랑의 응답을 드린 돈 보
 스키의 삶의 모토, ‘Da mihi animas, cetera tolle(나에
 게 영혼을 달라,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인류 구원을
 향한 돈 보스코의 이 사도적 열정은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의 설립자 돈 치마티와 돈 가볼리의 생애에서도
 생생한 사랑의 불꽃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돈 보스코가 모든 살레시오 가족들에게 물려준
 영혼구원을 위한 사도적 열정은 오늘 우리 시대의 갖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도
 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자기식의
 일방적 사랑을 하다가 지쳐 그에 상응한 응답이 돌아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웃 형제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복음적 봉사가 일방적
 인 베품에 그칠 때는 자기만족이나 허탈감으로 끝나기
 쉽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달인 돈 보
 스키는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랑받고 있
 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고 가르치셨지요.

우리 주위의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되려
 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1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필리핀을 방문
 하셨을 때, 열두 살짜리 고아 소녀 팔로마가 교황님께
 물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으며, 마
 약과 매춘, 가혹한 일들을 겪는 죄 없는 아이들에게 하
 느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요? 그리고 왜 이 아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가요?”라고. 그
 려게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소녀를 가슴에 안아주신
 교황님께서서는 “고통받는 아이들의 고통에 함께 울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대답에 가까이 갈 수 있단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슬픔과 고통에 참으
 로 공감하고 함께 울 줄 알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는 말씀입니다.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겨운 삶의 자리, 참사
 랑을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노인들, 가난
 하고 소외된 이들, 고통받는 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
 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 안에서 고통받으
 며 울고 계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이심을 생
 각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고, 아
 물지 않은 상처들이 치유되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아픈 울음을 그치고 주님 안에 기뻐하며 함께 평화를
 노래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살레시오 가족 여러분, 돈 보스코
 대희년에 도움이신 마리아와 돈 보스코의 전구로 모든
 살레시오 가족들이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을 충실히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쁨의 살레
 시안으로 거듭나기를 기도드립니다.

“Da mihi animas, cetera tolle!”



참가자
모집

세계 살레시오 청년대회



■ 참가대상: 만 17세 ~ 30세 미혼 남녀 (30명)

■ 참가일정: 2015년 8월 5일 ~ 17일

■ 접수기간: 2월 23일부터 선착순 접수

■ 참가문의: symkor@gmail.com / 카톡 ID: sdbkang

